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이익추정치, 성장 등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30 종목을 선별하여 구성된 뉴블루칩3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하여 뉴블루칩30지수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하는 투자전략을 사용

- 이러한 투자전략을 통해 운용역의 판단을 배제하고 인덱스를 충실히 추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덱스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67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주식편입비: 60% 이상 (단, 뉴블루칩3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의 투자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3년 12월 02일)

- 클래스 A : 2011년 03월 25일
- 클래스 A-W : 2008년 04월 21일
- 클래스 C : 2008년 05월 02일
- 클래스 C5 : 2012년 09월 18일

벤치마크 뉴블루칩30지수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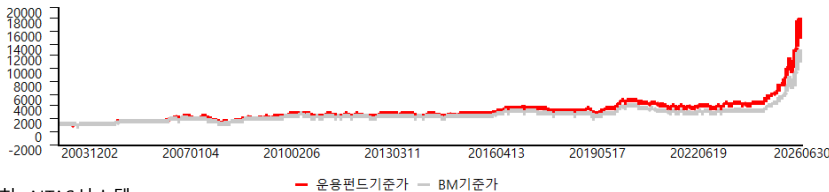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53%	80.02%	117.78%	206.56%	267.69%	322.86%	242.19%	1,585.60%
클래스 A	-0.63%	79.63%	116.71%	203.12%	258.83%	307.26%	220.86%	401.32%
클래스 A-W	-0.56%	79.92%	117.51%	205.71%	265.47%	318.94%	236.76%	584.56%
클래스 C	-0.54%	80.03%	-	-	-	-	-	96.10%
클래스 C5	-0.63%	79.63%	116.72%	203.12%	258.83%	307.27%	220.86%	429.68%
벤치마크	-0.53%	79.72%	117.13%	201.92%	253.10%	299.29%	208.50%	1,12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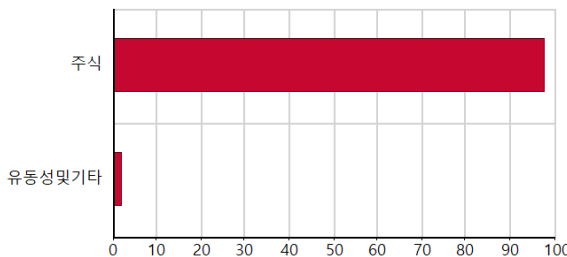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6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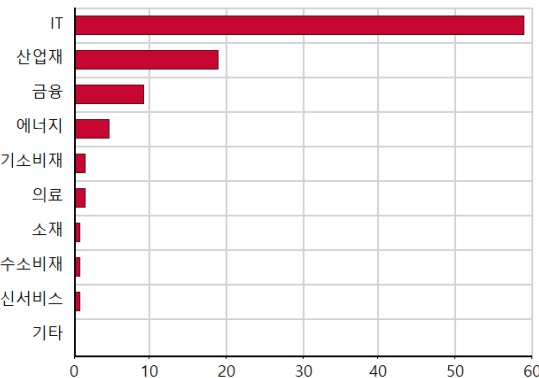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7.6
2	유동성및기타	2.4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59.2
2	산업재	19.0
3	금융	9.2
4	에너지	4.6
5	경기소비재	1.6
6	의료	1.4
7	소재	1.0
8	필수소비재	0.8
9	통신서비스	0.7
10	기타	0.0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6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6.4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5.0
삼성전기	전기.전자	5.3
SK	금융	3.2
삼성생명	보험	2.6

종목명	업종명	비중(%)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2.3
KB금융	금융	1.9
삼성물산	유통	1.9
한화오션	운송장비.부품	1.8
삼성SDI	전기.전자	1.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33% (판매 1%)
- 클래스 A-W : 총 연 0.33% (판매 0%)
- 클래스 C : 총 연 1.83% (판매 1.5%)
- 클래스 C5 : 총 연 1.33%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2825%, 신탁 0.03%, 사무관리 0.017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A-W: 납입금액의 0.17%
- 클래스 C, C5: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KOSPI는 전월 수준인 8,476.48pt, KOSDAQ은 14.76% 하락한 916.18pt로 마감했습니다. KOSPI는 월간 기준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한 달간 서킷브레이커 3회, 사이드카 9회가 발동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월초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젠슨 황 방한 기대감으로 KOSPI의 9,000pt 돌파 기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로드컴 실적 가이드스 실망감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로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았고, KOSPI도 한때 7,400pt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월중에는 미국 금리 상승 부담과 미국-이란 갈등 고조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소식에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강화,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맞물리며 KOSPI는 사상 처음 9,000pt를 돌파한 뒤 9,300pt선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월말에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부담이 재부각되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며 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인터넷,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1.50원으로 전월 대비 2.37% 상승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69.50달러로 전월 대비 20.44% 하락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4.5조원, 2.6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58.7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며 시장의 관심은 매크로에서 기업 실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미국-이란 휴전 이후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7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FOMC 전후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은 부담 요인이거나, 한미 금리차 축소와 고환율 완화 대응, 연준의 장기금리 전망 유지 등을 감안하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에 시장은 기업 실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모멘텀 피크아웃 우려로 조정을 받았으나, 하반기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을 바탕으로 실적 발표 이후 상승 흐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도주와 소외주 간 격차 부담, 정책 지원 기대에 따른 업종 순환매로 단기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도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며 지수는 전고점 경신을 시도하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개별 기업의 이익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점인 만큼 이익모멘텀, 낙폭과대, 절대 저평가 팩터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및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 풀림이 완화된다는 과정에서 소외 업종의 반등 가능성에도 주목하겠습니다. 매크로 변수의 변동성 확대에는 선제적 트레이딩으로 대응하고, 실적 상향 종목에 대한 포지션 구축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BM 복제율을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차익거래, 지수 편·출입, IPO 참여, 락업 해제, 기업분할·합병, 유·무상증자 등 이벤트 트레이딩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